

몽골 자연사박물관(Natural History Museum of Mongolia)

7천만년 전의 공룡화석 전시

지리적으로 중앙아시아의 심장부에 위치한 칭기스칸(Chinggis Khan)의 나라 몽골(Mongolia)을 방문한 것은 지난 9월 초였다. 북서쪽의 산림지대와 중앙부의 초원 그리고 남쪽의 황량한 고비사막으로 이루어져 있는 몽골은 독특한 자연환경 뿐만 아니라 풍부한 지하자원과 세계 최대의 공룡화석 산출지로도 잘 알려진 곳이다.

1924년 개관 전시실 30개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Ulaanbaatar)를 향해 가던 비행기가 북경의 상공을 지나다가 싶더니 어느새 누런 색으로 변해버린 초원지대와 끝없이 넓은 사막의 풍경이 한동안 계속되었다. 한 때 이 드넓은 초원을 질주하며 거대한 제국을 형성하였던 칭기스칸의 기마군단을 떠올리고 있을 무렵 솜사탕같이 몽실몽실 떠 있는 구름 사이로 울란바토르의 시내 모습이 잡힐 듯이 다가오기 시작하였다. 야릇한 흥분과 설레임으로 공항 대합실을 빠져 나오니 마치 어릴 적 시골에서 함께 살았던 듯한 친숙한 얼굴들이 일제히 출입구를 응시하고 있었다. 놀랍게도 공항에서 시내로 들어가는 길에 만난 자동차들의 대부분은 한국산 중고차였으며, 시커먼 매연을 뿜으며 힘겹게 언덕을 오르는 낡은 러시아제 트럭과 버스들도 눈에 들어왔다. '청량리-서울

역'이라는 한글이 선명하게 남아있는 중고버스를 보면서 혼자 웃음을 짓고 있을 때 일행을 태운 택시는 어느새 호텔 입구로 들어서고 있었다.

정겨운 첫 인상과 함께 처음 방

문한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낯설지 않게 느껴지는 것은 아마도 지구상에서 우리와 가장 유사한 외모를 가졌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다음날 아침 파란 가을하늘과 상쾌한 공기를 음미하며 시내 중심부에 있는 '몽골자연사 박물관(Natural History Museum of Mongolia)'을 찾았다. 'ㄷ' 형태의 흰색 건물로 지어진 몽골자연사박물관은 건물 중앙의 현관문을 통해 출입하도록 되어 있으며, 바로 앞 길 건너편에는 국회의사당과 몽골역사박물관(National Museum of Mongolian History)이 자리잡고 있다.

1924년 '국립 박물관(National Museum)'이라는 명칭으로 출발한 몽골자연사박물관은 몽골에서 가장 먼저 세워진 박물관이며, 개관 30주년을 기념하여 1954년에 현재의 건물로 이전



몽골 자연사박물관의 전경

한 것이다. 1992년 지금의 몽골자연사 박물관에 있던 역사 분야의 유물들은 모두 역사박물관으로 이관되었고, 공룡화석을 비롯한 자연사 표본들만이 자연사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다. 현재 몽골자연사박물관은 약 30여개의 크고 작은 전시실에 지질, 지리, 동식물, 고생물 및 인류학 분야의 표본들을 전시하고 있다.

회색의 묵직한 철제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면 로비 좌우측에 매표소와 기념품 코너가 있고, 복도 양쪽으로 10개의 전시실이 이어져 있다. 3층으로 이루어진 이 건물은 원래 대학의 강의실로 사용되던 곳인데, 전시실로 들어가는 마루바닥과 2, 3층으로 올라가는 중앙의 대리석 계단마다 붉은 색의 카펫이 깔려 있는 것이 이색적이다. 오랫동안 보수를 제대로 하지 못한 듯한 건물내부를 보면서 몽골의 어려운 경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의 중심부에 위치한 몽골 자연사박물관은 1924년 국립박물관으로 개관한 후 1954년 현재의 건물로 이전하여 공룡화석을 비롯한 희귀한 자연사 표본들이 전시되고 있다. 1층에는 다양한 광물 및 암석표본이, 2층에는 7천만년 전의 각종 식물 공룡화석 등이 눈길을 끈다. 또 3층에는 몽골에서 서식하는 사슴·낙타·곰 등이 전시되고 있다.

제사정을 짐작할 수 있었지만, 이곳에 전시된 표본들만큼은 어느 것 희귀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공룡골격·공룡알 등 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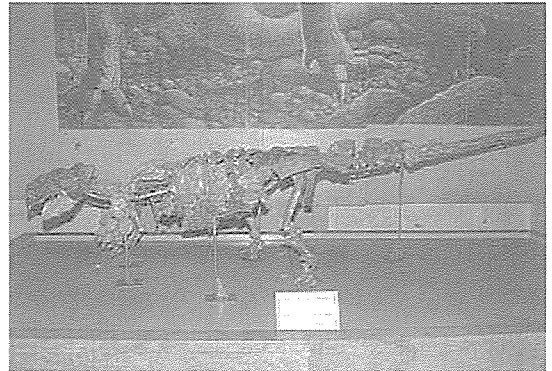
주로 몽골의 지형과 지질을 소개하는 1층의 전시실에는 다양한 광물 및 암석표본을 비롯하여 화산, 지구의 기원, 우주탐사 등에 관한 내용들이 전시되어 있다. 이곳에서는 특히, '노온보그드(Noyon bogd)'라고 명명된 무게 5백82kg의 대형 철운석을 포함하여 몽골 각처에서 수집된 다양한 종류의 운석들을 볼 수 있다.

세계적으로 희귀한 멸종대상 보호종과 함께 약 2백종 이상의 조류표본들을 관람한 후, 2층의 '고생물전시실(Paleontological Gallery)'로 올라가면 고비사막에서 산출된 약 7천만년 전의 각종 식물 공룡화석들이 관람객

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이곳에는 대형 육식공룡 '타르보사우르스(Tarbosaurus)'와 갑옷공룡 '사우롤로푸스(Sauropus)' 이외에도 거의 완벽하게 보존된 다양한 공룡의 골격화석, 피부화석, 알 화석, 족흔화석, 규화목 등이 전시되어 있는데, 박물관장의 설명에

의하면 현재 이곳에 전시된 표본 이외에도 20여마리의 전신골격 화석들이 미국, 일본, 이탈리아 등지에서 전시되고 있다고 한다. 또한, 2층에는 지질시대별 식물화석과 1백50여종의 식용식물 표본이 전시된 식물 전시실, 각종 곤충표본을 볼 수 있는 곤충 전시실, 70여종의 몽골 담수어류를 전시한 어류 전시실 및 도서실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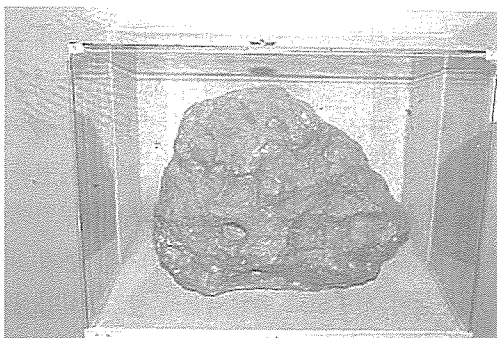
건물 중앙의 계단을 따라 3층으로 올라가면 몽골에서 서식하는 사슴, 양, 낙타, 말, 늑대, 무스, 곰 등의 표본들을 개별적으로 전시한 포유류 전시실과 사자, 호랑이, 원숭이 등의 표본을 전시하여 몽골인들로부터 가장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아프리카 사바나 전시실이 있다. 이 밖에도 13세기의



'노온보그드(Noyon bogd)'라고 불리는 무게 5백 82kg의 대형 철운석

무덤에서 출토된 인간의 골격과 원숭이의 골격을 나란히 전시한 '인류 전시실(Anthropological Gallery)'도 관람객의 흥미를 끌기에 충분하다.

이번 몽골 방문기간 동안 세번이나 찾아가던 몽골자연사박물관은 노후한 건물과 전시기법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자세한 설명문과 친절한 안내 덕분에 몽골의 자연환경과 생태계의 구성을 이해하는 데 매우 큰 도움을 주었다. 전시실에서 사진이나 비디오촬영을 하는 경우에는 관람료 이외의 부가요금을 추가로 더 내야하는 시스템이 낯설기는 하지만, 더 없이 순박해 보이는 전시실 안내직원들의 얼굴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①7



고비사막에서 산출된 7천5백만년 전의 갑옷공룡 사이카니아(Saichania)의 식물 전신골격 화석

李貞九
(국립중앙과학관 자연사연구실 연구사)